

# 통사 범주, 문법적 기능, 그리고 형상 —표지 개념에 의한 분석

우순조

성결대학교

woosj@sungkyul.edu

## 1. 들어가는 말

통사론의 일차적인 목표는 통사 단위들의 상대적 분포와 함께 이들이 통합되어 형성하는 통사적 구조체가 술어에 대하여 담당하는 문법적 기능을 올바르게 예측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장 구성의 원리를 규명해 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Chomsky적 생성문법에서는 이 두 가지 현상을 소위 형상에 의거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한국어 통사론 연구에도 이러한 접근법이 원용되어 이론의 변천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들이 개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형상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한 분석의 설명력에도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표지 개념에 의한 분석을 제안하고, 이러한 분석이 한국어의 형상적 본질에 관한 언어학적으로 의의있는 일반화의 도출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법 형태소의 기능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함을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2. ‘형상의 정의와 효용’에서는 형상의 수학적 정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형상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영어와 한국어의 대비를 통하여 적어도 한국어의 통사적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상 개념이 부적절함으로 보일 것이다. 3. ‘구절구조의 변천’에서는 표면적으로 형상 개념의 포기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상 개념은 그 형식만 바뀌었을 뿐, 앞서 지적한 두 가지 목표를 위하여 여전히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표지 개념에 의한 분석의 배경적 이해를 도모할 것이다. 4. ‘통사 범주와 문법적 기능’에서는 술어의 하위범주화 내역에 포함되어야 할 논항 정보와 관련하여 주어가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할 것이다. 5. ‘해석전략적 접근’에서는 술어의 논항들이 문장 속에서 실현되는 양상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표지 개념을 소개하고 이 개념이 언어습득 과정에서 형식형태소가 더 늦게 습득되는 이유와 형식형태소와 실질형태소의 비대칭적 행태, 그리고 언어에 따른 문장 구성 성분들의 어순상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 기초를 제공함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에 입각함으로써 한국어의 형상적 본질에 관한 유의있는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킬 것이다. 6.에서는 논의를 정리할 것이다.

## 2. 형상의 정의와 효용

### 2.1. 형상 개념의 도입

인간 언어의 통사적 본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바는 인간 언어에서 단위 표현들이 단순히 시간에 따라 일렬로 배열되는 것이 아니며 내적인 구조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초기의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IC-analysis를 통하여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였고, 이는 후에 아래 (1)과 같은 구절구조 규칙의 형태로 문법에 도입되게 된다.

- (1)a. S → NP VP
- b. NP → Det N
- c. VP → V NP
- d. PP → P NP
- ...

언어학자들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는 이렇게 구조화된 통사적 구성체들이 주어진 술어에 대하여 의미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언급의 편의상 이를 문법적 기능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주로 의미적인 기준에 입각한—다양한 정의들이 시도된 바 있으나, 개별 어휘에서 관찰되는 특이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의는 찾아지지 않았다.

그런데 (적어도) 영어에서 각각의 문법적 기능들은 다양한 의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통사적 행태를 보인다. 시제를 가진 동사를 선행하는 명사구의 핵어는 수(number)에 있어서 동사와 일치될 보이며,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명사구는 동사 바로 뒤에 분포한다는 등의 규칙성이 그것이다. Chomsky(1965)는 이러한 일반성에 주목하여 문법적 기능에 관한 형식적 정의를 제안하였다. 예컨대, 문장을 직접구성하는 명사구가 주어([S, NP])이고 동사구를 직접구성하는 명사구([VP, NP])가 목적어라고 정의하는 방식이다.

## 2.2. 형상의 수학적 정의

수학적으로, 형상 C는 일정한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S와 이들 원소들 사이의 관계 R로 이루어진 순서쌍으로 정의된다.

### (3) 형상의 수학적 정의

$C = \langle S, R \rangle$  ( $C = \text{configuration}$ ,  $S = \text{Set}$ ,  $R = \text{relation}$ )

이를 구절구조 규칙에 적용시키자면, 집합 S의 구성요소들은 교점 S를 직접구성하는 성분들에 해당하며, 관계 R은 이들 성분들 사이의 상대적 순서에 해당한다. 이를 위의 (1)a-c에 적용시키면 각각의 구절구조 규칙은 아래와 같이 형상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sup>1)</sup> 그리고 (4)-(6)의 국부적 형상들이 통합되면 아래 (7)과 같은 전체적인 형상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4)a.  $C_S = \langle S_S, R_S \rangle$ <sup>2)</sup>

b.  $S_S = \{ NP, VP \}$

c.  $R_S : NP < VP$

(5)a.  $C_{NP} = \langle S_{NP}, R_{NP} \ran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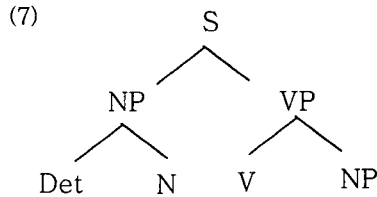
b.  $S_{NP} = \{ Det, N \}$

c.  $R_{NP} : Det < N$

(6)a.  $C_{VP} = \langle S_{VP}, R_{VP} \rangle$

b.  $S_{VP} = \{ V, NP \}$

c.  $R_{VP} : V < NP$



1) 형상의 정의에 대해서는 Wall(1972)를 참고.

2) 여기서 하첨자(subscript)는 형상의 유형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사용하였으며, 여는 각괄호 '⟨'는 왼쪽의 요소가 오른쪽의 요소를 선행한다는 의미로 쓴다. 그리고 언어 사실을 감안할 때, 집합은 동일한 요소가 반복해서 출현할 수 있는 배반 집합(multiple set)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형상의 정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집합의 구성 요소의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그 구성 요소들은 모두 엄밀히 명세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형상의 정의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형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개수나 종류,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어떠한 형상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두 개의 형상이 동형적인지 여부는 각각의 형상에서 집합을 구성하는 요소의 종류와 개수가 동일한지,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들 사이의 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sup> 이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영어와 한국어의 예를 보자.

(8)a. John gave him a book<sup>4)</sup>

b. \*John gave a book him

c. John gave a book to him.

(9)a. 철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

b. 철수는 책을 그에게 주었다.

영어의 수여동사 구문에서 (전통문법의 용어를 써서 표현하자면)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의 어순은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법적 기능을 형상적 위치와 연결짓고자 하는 시도의 또다른 배경을 이룬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생성문법에서는 (7)과 같은 나뭇가지 모양의 형상을 상정하게 되었다.<sup>5)</sup>

그러나 조사의 형태/통사적 지위에 관한 쟁점을 논의로 하고 순수히 논항을 이루는 성분 전체의 상대적 어순만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어와 영어는 형상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예문 (9)a-b에서 보듯이 영어

3) 여기서 동형적이란 말은 'isomorphic'의 의미로 쓴다. 이에 대해서는 isomorphism에 대해서는 Partee, et al.(1990)을 참고.

4) 이러한 방식을 따르면서 (8a)를 (8c)와 연관지를 원리적인 방법은 없다. 그러나, 뒤에서 논의되겠지만, 이들이 동일한 theta-role을 가진다는 사실은 이러한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5) 여격 구성에서 구성 성분의 숫자는 쟁점이 된다. Larson(1988)은 모든 형상이 양분지 구조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형상의 고유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내지는 은밀히 재정의된 형상 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형상의 수학적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비형상적이라는 말은 자연언어의 표현들이 아무런 내격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모든 언어는 그 나름의 고유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Chomsky가 제안한 형상에 기반한 문법적 기능의 결정 방식이란 (7)과 같은 나뭇가지 모양의 형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순조(1994)에서는 수지적 형상과 비수지적 형상이라는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개념적 불합리를 해소하였다.

의 'give'에 대응하는 한국어 동사 '주-'의 목적어들은 서로 자유로이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암시하는 명백한 사실은 한국어 문장의 형상이 영어의 형상과는 다르다는 점이다.<sup>7)</sup>

### 2.3. 잉여성

앞서 (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구절구조 규칙들만으로는 비문법적 문장의 생성을 차단할 방법이 없다. 예컨대, (7)과 같은 형상에서 동사 교점에 'run', 'sleep'과 같은 어휘가 삽입된다면 비문이 될 것이므로 비문 생성을 막기 위해서는 어휘 삽입이 환경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어휘 삽입은 구조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휘에 기록되어야 할 정보가 하위범주화(subcategorization)이다. 예컨대, 'The boy kissed the girl'과 같은 문장의 생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래 (10)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kiss'가 요구하는 논항의 유형과 개수가 명세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명백한 중복이므로, 간결한 문법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잉여성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

(10) kiss: V, [\_\_, NP]<sup>8)</sup>

### 2.4. 기능 범주로의 확장

한편, Chomsky(1957)은 아래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법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구절구조 문법만으로는 자연언어를 기술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변형 규칙을 추가한 변형 문법이 추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11) Chomsky Hierarchy

- a. type 0: 변형 문법(transformational grammar)
- b. type 1: 맥락-의존 문법(context-sensitive grammar)
- c. type 2: 맥락-자유 문법(context-free grammar)
- d. type 3: 유한 상태 문법(finite state grammar)

6) 뒤에서 논의되겠지만, 수지적 형상 개념을 포기하고 이 글이 제안하는 완화된 형상 개념을 받아들이면 본질적인 형상적 차이는 해소될 수 있다.

7) 한국어 형상의 특성에 관한 논의로는 우순조(1994, 1995, 1997)를 참고하기 바란다.

8) 예컨대, 영어의 어휘 항목에 기록되어야 할 정보로는 음성 형식, 이형태 정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글의 논의와 무관하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래 (12)a-b에서와 같이 성분의 어순이 바뀌었으나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유지하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12)a. The boy loves the girl.

b. The girl<sub>i</sub>, the boy loves t<sub>i</sub>.

그런데, 구절구조 규칙을 이용하여 문장의 구조를 기술하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기능 범주(functional category) 및 이를 제어하는 규칙의 도입으로 이어진다. 그 이유는 (12)b.에서 도치된 목적어 성분과 나머지 문장 성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구절구조 규칙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된 기능범주의 도입은 다른 언어의 사실을 포용하기 위하여 확장되기도 하였다. 일례로, Pollock(1989)이 불어 particle과 부정부사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하여 INFL의 구조를 확장한 것이 그것이다.<sup>9)</sup> 이러한 생각은 그대로 한국어 문법 기술에도 원용되어 교착형태소의 분포와 기능을 설명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 3. 구절구조 규칙의 변천

#### 3.1. 잉여성 해소 방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절구조 규칙을 이용하여 문장의 구조를 기술하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문법적 정보의 잉여적 기술을 초래하는 까닭에 이러한 잉여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때의 잉여성이 규칙과 하위범주화 정보의 중첩이므로 잉여성의 해소 방안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3.1.1 규칙 기반 방식

한 가지 방식은 동사에서 유형 정보만을 남긴 채 하위범주화 정보를 삭제하되 적절한 어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칙에도 유형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일반구구조문법(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에서 채택한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sup>10)</sup>

9)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보편문법의 내용은 결국 모든 언어의 특수성을 한데 모아놓은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내성적(introspective) 방법에 의한 보편성의 추구가 가지는 한계가 아닐 수 없다.

(13)a. VP → V[n], NP

b. love: [n]

이러한 방식은 어휘적 특수성을 어휘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규칙에 떠넘겼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sup>11)</sup>

### 3.1.2. 어휘 기반 방식

다른 방식은 어휘적 정보를 유지하고 규칙을 포기하는 방식이다. Chomsky적 생성문법이 채택해 온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방식은 성분들 사이의 통합을 제어하는 규칙들을 투사 원리(projection principle)로 대체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Fukui and Speas(1986), Fukui(1995), Speas(1990), Grimshaw(1991) 등이 그 예이다. 이들 분석의 공통점은 기능 범주를 핵어(Head)로 파악하고 이들에 의한 구조 확장을 도모한다는 점에 있다.

Abney(1987)도 이러한 노선에 속하는데, 그는 Jackendoff(1972)에서 제안된 X'-theory를 명사구에게까지 확대적용하여 생성문법적 전통에서 오래도록 한정사(Specifier)로 기술되어 온 D(eterminer)를 핵어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분석이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기능범주와 어휘 범주 사이의 차이를 도외시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기능 범주는 논항 선택(selection)에 있어서 어휘 범주와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기능 범주를 핵어로 분석하는 방식은 언어적 직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명사구 구성에서 Determiner의 실현은 수의적이는데, 기능 범주를 핵어로 하는 분석은 이러한 현상을 적절히 포착하지 못한다.<sup>12)</sup> 이에 대한 비판은 Chametzky(2000, 2003)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

10) 일란구조 문법에 대해서는 Gazdar et al.(1985)를 참고.

11) 그러나 GPSG에서 기존의 구절구조 규칙의 지배 관계(dominance)와 선후 관계(precedence)를 구분한 것은, GPSG 안에서 이를 활용하는 방식과 무관하게, 이론적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시각이 논항을 이루는 문장 성분과 이들의 배열(alignment)을 구분하여 기술할 수 있는 관념적 토대를 이루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투사 원리에 따르자면 기능 범주로의 확장이 기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명사구 구성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투사(vacuous projection)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은 자연언어 처리와 같은 실용적 분야에 적용시킬 때에 불필요한 시간적/공간적 복잡도의 증가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 3.2. 통사 범주와 문법적 기능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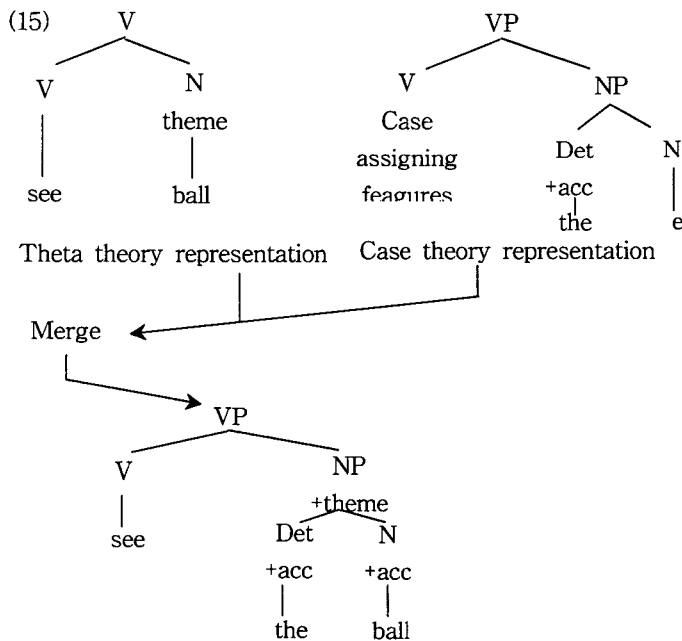
Lebeau(1988)은 유아들의 언어 습득 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능 범주가 어휘 범주보다 나중에 습득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원리를 제시하였다.

(14) General Congruence Principle

Levels of grammatical representation correspond to (the output of) acquisition stages.

그의 주장의 핵심은 theta-relation과 case relation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Case relation이 나중에 습득된다는 사실은 이것이 이전 단계에서 관찰되는 언어 현상과 하나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두 가지 관계가 아래 (15)에서와 같이 병합(merge)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단일한 표면적 구조로 귀결된다고 주장한다.<sup>13)</sup>



(Chametzky:2003, (27)을 옮김)

13) 이는 이후 Chomsky적 생성문법이 최소주의로 전환하는 중대한 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최소주의에 관해서는 Chomsky(1995, 2001) 등을 참고.



엄밀히 말하자면, Lebeau의 제안이 통사 범주와 문법적 기능을 선명하게 구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적어도 격 현상을 theta-role을 담당하는 논항, 즉 통사 범주로부터 분리하여 기술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분석들과 대비된다. 글쓴이는 그의 주장이, 그의 사실 인식과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점을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문법적 기능을 표상하는 방식이 독립된 언어적 장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은 역시 기존의 형상적 분석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sup>14)</sup>

## 4. 하위범주화 내역과 참여

### 4.1. 주어의 선택

Lebeau의 주장은 하위범주화 내역이 순수히 theta-role의 목록이 되고, 이들 각각의 형태는 격 관계를 관장하는 별도의 장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에 주어가 배제될 이유는 없다. 주어 역시 핵어인 동사에 의하여 선택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위범주화 내역을 명세하는 작업은 핵어가 그것과 공기하는 성분을 고유하게 선택하는 어휘적 특수성을 기술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주어의 선택 역시 핵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여타의 보어와 다를 바가 없다.

하위범주화 내역에서 주어를 배제하게 된 데에는 주어와 여타의 보어들이 분포상의 비대칭성을 보인다가, 주어와 동사의 일치 현상이 있다거나 혹은 아래 (16)에서 보듯이 동사구 전치(VP preposing)과 같은 통사적 현상이 그 배경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 (16)a. He planned to climb Mt. Baekdo,   
 b. and climbed Mt. Baekdo, he has t<sub>i</sub> .

그러나, 위에 열거한 사실들 가운데 어떤 것도 동사가 주어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의하지는 못한다. Chomsky의 시도 자체는 문법적 기능의 구분이 그가 상정하는 수지적 형상을 통해 설명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14) 그는 예문 (15)의 병합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Lebeau:1988, 244)

“First it inserts two lexical items into the slots provided by the case frame: the head verb and the theta governed noun. Second, it percolates the theta relation already assigned to the noun to the NP node (theme, in this case). Third, it copies the Case that was originally associated with the determiner position onto the head noun. This means that ball, as well as the, is marked for (abstract) accusative case.”

나타낼 뿐이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와 ‘그렇게 해야 한다’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17)a. Here comes the sun.

b. Yes, there it comes.

수지적 형상에 따라 문법적 기능을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17)a에서 ‘the sun’은 목적어로 규정될 것이다. (17)b에서 대명사 ‘it’이 (17)a의 ‘the sun’을 대리하는 것은 명백하다. 동사의 굴절형태 역시 ‘the sun’과 수의 일치를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문법적 기능을 형상적으로 정의하는 방식과 언어 현실 사이에 피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반례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형상에 근거한 문법적 기능의 설명이 영어에 국한된 것이라면 몰라도 이것이 보편문법의 실질적 보편소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곤란하다.

타동 구성의 유형론을 통해 우리는 주어와 목적어 및 동사가 이룰 수 있는 수학적 배열 가능성 전부가 자연언어에서 관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18)a. S V O

b. S O V

c. O S V

d. O V S

e. V S O

f. V O S

(18)a가 영어의 성분 배열이고 (18)b가 한국어나 일본어의 성분 배열이다. 그런데, (18)c나 (18)e.에서와 같이 주어에 의해 동사와 목적어가 분리되어 배열되는 언어에서는 동사와 목적어가 하나의 성분을 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4.1.2. 수동태의 행위주

주어의 선택은 수동태에서 행위주(agent)의 실현 양상과도 관련이 있다. Chomsky적 생성문법의 분석에서 능동태와 수동태의 상관성을 변형 규칙을 이용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는 이미 오래 전에 중단되었고, 수동태의 논항 구조의 변화를 어휘 규칙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9)a. He will do it by tomorrow morning.  
 b. It shall be done (by him) (by tomorrow morning).  
 c. It shall be done by him by tomorrow morning.  
 d. <sup>(?)</sup>It shall be done by tomorrow morning by him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동태에서 행위주의 실현은 능동태의 주어나 목적어와 같이 의무적이지 않고 의미/화용론적 동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첨어적 성격을 띤다. (19)a에 대응하는 (19)b에서 행위주에 해당하는 'by him'과 시간 전치사구(temporal locative)가 모두 생략될 수 있으며, (19)c와 (19)d가 거의 대등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로 보아 핵어와의 상대적 위치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일 수동태의 행위주가 첨어라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어휘 규칙은 문체의 어휘 규칙이 논항의 수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0)a. Snow covered the roof.  
 b. The roof was covered with/by snow.  
 (21)a. The news surprised all the people.  
 b. All the people were surprised at the news.

그런데 (19)c에 등장하는 두 전치사구의 의미 역할은 구분되어야 한다. 비록 첨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어진 문장 안에서 담당하는 의미 역할은 고유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9)의 'by (him)', (20)b의 'with (snow)', (21)b의 'at (the news)'가 서로 수의적으로 교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시간이나 장소의 전치사구가 거의 모든 동사와 함께 쓰일 수 있다는 사실과 대비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수동태에서 능동태의 주어에 대응하는 성분 역시 동사에 의해 선택되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옳다면 어휘 규칙이 논항의 수를 줄인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각각의 의미역이 실현되는 양상, 즉 위치와 전치사의 등장을 설명하는 것이다.

## 4.2. 첨어

첨어는 생성문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론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첨어는 소위 보어로 분류되는 문장 성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22) 첨어의 특성

- a. 첨어의 실현은 의무적이지 않다.
- b. 보어보다 핵어에서 멀리 위치한다.
- c. 여러 개가 등장할 수 있다.
- d. 첨어들 사이의 어순은 특정되지 않는다.

(22)d의 특성과 관련하여 Ross(1967)은 scrambling을 문체적 변이의 문체로서 문법에서 다룰 바가 아니라고 한 바 있다. 그것이 문체론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첨어 역시 같은 문장 안의 다른 요소들, 특히 동사와의 관계가 기술되어야 한다. 아무런 의미적 관계 없이 문장 안에 도입되는 요소는 없기 때문이다. 통사론은 보어와 첨어에 상관없이 문장 구성에 참여하는 모든 언어 표현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해 내야 한다. 형상을 빌어 표현하자면 첨어의 형상적 위치 역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어의 의미역이 형상적 위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 가정에 따라 주어, 직접목적어 그리고 간접목적어의 위치를 계층적 구조로서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첨어들 사이의 어순이 자유롭다는 사실은 적어도 첨어들 사이의 계층적 위치는 형상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서로 상충되므로 의미역의 형상적 위치에 관한 일반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리적인 해답은 형상 안에서의 모든 성분의 위계적 위치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일반화란 특수성의 소거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하위범주화 내역과 관련하여, 주어로 기능하는 의미역 성분 역시 동사의 하위범주화 내역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첨어와 보어의 비대칭성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일반화를 피한다면 모든 성분이 형상에서 동일한 위계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해석전략적 접근<sup>15)</sup>

5.1. 문법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

토박이 언어사용자의 언어적 직관을 탐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주어진 언어의 문장을 만들어 내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화자 중심 접근법 내지는

---

15) 아래의 논의는 주로 우순조(1998)에서 취했다.

생성적 접근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Chomsky 적 생성문법이 취해 온 방식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토박이 언어사용자가 주어진 발화를 해석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청자 중심 접근법 내지는 해석적 접근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접근법을 선택하든 각각의 접근법에 따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그 결과는 동일할 것이라는 논리적 예측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언어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할을 화자와 청자의 어느 한 가지로 고정시킬 수는 없으며, 이들은 끊임없이 역할 바꾸기를 통해 시간 차이를 두고 화자이면서 청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청자가 문장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를 편의상 생성 전략이라 부르자—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그것은 화자가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이를 편의상 생성 전략이 부른다.—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를 전달할 필요를 느끼는 주체는 화자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화자는 청자의 해석 전략을 준수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석 전략은 생성 전략을 포괄할 수 있으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 5.2 표지

### 5.2.1. 사태 구조, 통사 범주, 표지

통사적 현상에 대한 토박이 언어 사용자의 직관과 관련하여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단위 표현들이 모여서 더 큰 통사적 단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sup>16)</sup> 다른 하나의 사실은 이렇게 형성된 통사적 단위들이 모여서 문장을 형성할 때에 이들이 핵어인 술어에 대해서 일정한 의미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문장이 세계의 일부—이를 편의상 사태 구조라고 하자.—를 표상하는 언어 단위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에, 문장의 구성 방식은 크게 사태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지시/한정하는 방식과 이 요소들이 주어진 사태 구조 속에서 맺고 있는 관계를 표상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통사론의 시각에서 보자면 전자는 논항 구성 단계에 해당하고, 후자는 논항의 문법적 관계를 결정하는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사론의 기본적인 과제는 단위 표현들이 모여서 하나의 통사적 구성체를 형성하는 방식과 이렇게 만들어진 통사적 구성체의 문법적 기능을 표상

16) 이는 대응 표현으로의 대치 조작이나 이동 조작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하는 언어적 장치를 규명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통사적 구성체의 문법적 기능을 표상하는 모든 언어적 장치를 표지(marker)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표지는 관계적 의미를 표상하는 언어적 형식 모두를 지칭한다.<sup>17)</sup>

## 5.2.2. 언어 습득과 표지

우리는 앞에서 Lebeau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기능범주(그의 용어로는 closed class)의 학습이 언어 발달 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언어 발달 과정이 단음절의 발음에서 출발하여 다음절 단계로, 한 어휘 단계에서 다어휘 단계로, 그리고 단순한 문형에서 복잡한 문형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은 기능 범주의 역할에 대해서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sup>18)</sup>

문장 구조의 복잡도에 비례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관계와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리라는 것은 쉽사리 예측할 수 있는 일이며, 그에 따라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언어적 장치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5.3. 어순과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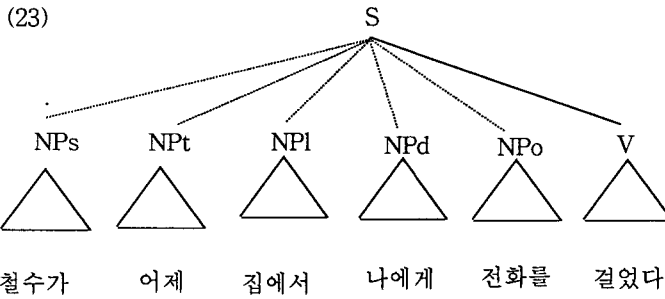
### 5.3.1. 자유어순과 표지

‘주어나 목적어 등의 문법적 기능이 각기 서로 다른 계층적 위치에 대응한다.’는 Chomsky의 발상이 어순 현상을 반영한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그의 제안을 조금 수정하면 ‘어순의 변화에 따라 형상적 위치가 달라지면 문법적 기능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명제가 참이라면 그 대우인 ‘어순의 변화에 따라 문법적 기능이 달라지지 않으면 계층적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도 참이다.

---

17) 표지 개념은 한국어 조사의 분포와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순조(1994)에서 제안되었다. 표지 개념에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로는 우순조(1998)을 참고, 우순조(1998)에서는 특히 표지 개념을 한국어 어미에까지 확대시킴으로써 한국어의 형상적 본질에 관한 일반화가 도출될 수 있음이 논의되었다.

18) 여기서 말하는 기능범주란 C, I, D, P 등을 가리키는데, 통사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은 C, D, P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D는 다시 C나 P와 다르다. 전자는 후자와 달리 관계 개념을 표상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약식으로 정의한 표지에는 C와 P만이 포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는 술어가 문장의 마지막에 위치해야 한다는 제약만이 있을 뿐 술어에 딸린 성분의 위치는 정의되지 않는다. (23)에서 동사 ‘걸(었다)’에 딸린 다섯 개의 성분이 이를 수 있는 배열은 모두 120가지이고, 이 모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23)에서와 같이 ‘걸(었다)’에 의존하는 성분을 동일 층위에 배열하는 당위성을 확보하게 된다.<sup>19)</sup>

이렇게 다양한 어순이 가능한 이유는 자명하다. 각각의 문장 성분에 그것의 문법적 기능을 드러내 주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굴절어에서 문장 성분의 문법적 기능은 격 형태에 의하여 표상된다.

### 5.3.2. 고정어순과 표지

영어에서 첨어로 쓰이는 전치사구들 사이에는 어순의 제약이 보이지 않음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도 표지의 관점에서 보면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전치사에 의해 그것을 뒤따르는 명사구의 문법적 기능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주어와 목적어는 계층적 형상을 이루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영어는 굴절어였으며, 문장 성분의 어순이 자유로웠다. 언어 변화의 결과로서 명사의 격이 상실됨에 따라 주어와 목적어의 어순이 고정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 (23)에서 점선은 어순이 고정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와는 달리 실선으로 연결된 V는 어순이 그 위치로 고정되었음을 나타낸다. 우순조(1994)는 이렇게 가변적인 어순의 형상을 모벌적 형상이라 이름 지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격 현상과 어순의 고정은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어는 격이라는 형태론적 표지의 상실을 고정 어순이라는 통사적 표지로 대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지 개념에 따르면 위의 (17)a와 같이 자동사 구문에서 주어가 동사를 뒤따르는 현상이 무리없이 설명될 수 있다. 언어 발달과 표지의 습득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설명되었듯이, 표지의 존재 의미는 주어진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구분하는 데에 있다. 만일 술어와 관계를 맺는 성분이 하나밖에 없다면 이를 구분할 표지는 필요없게 된다. 따라서 타동 구성에서 목적어에 할당된 주어가 나타나는 것이 차단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통사적 표지 개념은 여격 구성(dative construction)에서 간접목적어가 후치될 때 전치사가 등장하는 이유를 무리없이 설명할 수 있다. 만일 두 성분의 위치가 바뀌어도 아무런 명시적 표지가 보충되지 않는다면, 본래 설정된 통사적 표지에 따라 두 성분의 문법적 기능도 바뀔 것으로 해석될 것이기 때문이다.

## 6. 맺는 말

이 글은 문법 탐구 방법론의 하나로서 해석전략적 접근법과 문장 성분의 문법적 기능과 어순을 결정짓는 언어적 장치로서 표지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표지 개념을 통해 그 동안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문제들이 새롭게 설명될 있음을 영어의 예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형상의 수학적 정의를 설명하고, Chomsky적 생성문법의 이론적 변화 추이를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그 결과 생성문법적 접근에서도 최소주의에 이르러서는 불완전하나마 통사 범주와 문법적 기능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계층적 형상에 입각한 분석에서 문법에 추상적인 범주를 도입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복잡한 구조를 설정하게 되는 것과는 달리, 표지 개념을 받아들이면 단층적 구조로써 문장 성분의 문법적 기능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단층적 구조와 표지 개념에 입각한 문법 모델은 계층적 구조 및 그에 따른 부수적 원리를 수반하는 문법에 비하여 간결하다는 점에서 언어 습득의 신속성과 완벽성을 설명하는 데에 유리하다. 또한 형식 형태소의 습득이 언어 발달 과정에 비례하여 진행된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표지 개념은 개별 언어의 통사적 특질을 표지 시스템의 차이로써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일반언어학적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 참고문헌

- 우순조(1994), 한국어의 형상성과 관계표지의 실현 양상,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우순조(1996), 자유어순 언어의 형상성: 한국어의 경우, 언어 21-2.
- 우순조(1998), 모빌구조와 표지이론에 의한 한국어 통사/의미 기술, 언어학 22호.
- Abney, Steven(1987), *The English Noun Phrase in its Sentential Aspect*, Ph.D. dissertation, MIT.
- Chametzky, Robert A.(2000), *Phrase Structure: from GB to minimalism*,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Inc.
- Chametzky, Robert A.(2003) *Phrase Structure*. In Randall Hendrick(ed.) *Minimalist Syntax*, Oxford: Blackwell Publishing Ltd.
- Chomsky, Noam(1957), *Syntactic Structure*,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oam(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oam(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oam(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R. Martin, D. Michaels, and J. Uriagereka(eds.), *Step by Step*(pp. 89-155). Cambridge, MA: MIT Press.
- Fukui, Naoki(1995), *Theory of Projection in Syntax*. Stanford: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 Fukui, Naoki, and Margaret Speas(1986), "Specifier and Projection." in N. Fukui, T. Rappaport, and E. Sagey(eds.),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8.
- Gazdar, Gerald, E. Klein, G. Pullum, and I. Sag(1985),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imshaw, Jane(1991), "Extended Projection." Unpublished manuscript, Rutgers University.
- Jackendoff, Ray(1977), *X-bar Syntax*. Cambridge, MA: MIT Press.
- Larson, R.K.(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

- Lebeau, David(1988),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Form of the Grammar*,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GLSA.
- Ross, John Robert(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Partee, Barbara, G. Chierchia, and R. Wall(1990), *Mathematical Methods in Linguistics*.
- Pollock, Jean-Yves(1989),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20.
- Speas, Margaret(1990), *Phrase Structure in Natural Language*.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Wall, Robert(1972), *Mathematical Linguistics*.

우순조

430-74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야 8동 산 147-2

성결대학교 한국학부

email: [woosoonjo@korea.com](mailto:woosoonjo@korea.com) / [woosj@sungkyul.edu](mailto:woosj@sungkyul.edu)